

엘리야 - 넘버 파이브

예언적 침묵

Jeff Pippenger

2023-10-03

엘리야가 아합에게 온 이스라엘을 갈멜로 모으게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박해 3년 반을 거친 뒤 1798년에 교회를 암흑시대에서 이끌어내시고 1844년으로, 이어서 1863년으로 인도하신 것을 예표한 것이었다. 그 세 날짜는 이사야 7장에 제시된 '일곱 때' 구조의 마지막 세 이정표이다.

1798년, 1844년, 1863년의 동일한 역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끌어 시내 산으로 데려갔을 때에도 예표되었다. 첫째와 둘째 천사의 역사는 1798년 종말의 때에 시작되어 1863년에 교회로 조직될 때까지 계속된 밀러주의 운동을 대표한다. 엘리야와 모세는 밀러주의 역사에 대한 두 주요 증인이며, 그들은 셋째 천사의 역사 동안 요한계시록에서 두 주요 증인이다.

밀러주의 운동은 요한계시록 14장의 영원한 복음의 시작을 알리고, 퓨처 포 아메리카는 그 끝을 알린다. 밀러주의자들의 시작 운동과 마지막 운동 사이에 우리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를 보게 된다. 재림교회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1856년에 밀러주의 운동의 남은 무리가 라오디게아 상태에 들어갔으며, 그래서 1798년부터 1856년까지를 대표하던 빌라델비아 시대가 끝났다.

이전 글에서 우리는 영감된 기록이 흥해 도하의 실망을 1844년의 대실망과 병행시키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그 지점에서 만나로 상징되는 안식일의 시험이 모세의 역사 속에 도래했다. 같은 예언적 지점에서, 지성소에서 나온 빛은 바다를 건너 믿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간 자들을 대상으로 안식일을 시작으로 한 시험과 정결의 과정을 시작했다. 1844년에 앞선 시험 과정은 모세의 역사에서는 그의 출생에서 시작되었고, 밀러주의자들에게는 1798년에 다니엘이 지정한 '지식의 증가'와 함께 시작되었으며, 그 지식의 증가는 심판으로 이어지는 세 단계의 시험 과정을 낳았다.

많은 이들이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며 연단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악인들은 악을 행할 것이며, 악인들 가운데는 아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들은 깨달을 것이다. 다니엘서 12:10.

1844년 10월 22일의 심판의 개시는 애굽의 장자를 치는 것으로 시작해 흥해에서 끝난 바로에 대한 심판으로 예표되었다. 지혜로운 자들이 믿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갔거나, 곧 흥해를 건넌 때, 1798년 끝의 때에 시작된 시험의 과정은 1844년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모세의 역사에서는 그것이 열 가지 시험으로 표현되었고, 이스라엘은 매 단계마다 실패했다. 그 열 가지 시험 중 마지막은 열두 정탐꾼이 약속의 땅을 정탐했을 때였다. 모세의 역사에서 첫 번째 시험은 안식을 상징하는 만나 시험이었고, 밀러주의자들에게는 안식일이 1844년 10월 22일 이후의 첫 번째 시험으로 규정되었다. 두 평행 역사 모두에서 첫 시험이 안식일이었으므로, 모세의 역사에 나오는 나머지 아홉 가지 시험은 1844년 이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거나 사망의 광야로 이끌게 될 일련의 시험들이 있을

것임을 보여준다. 1863년은 밀러주의 운동의 최종 시험을 나타낸다. 우리는 열두 정탐꾼이 약속의 땅에 대한 보고를 가지고 돌아올 때부터 이 고찰을 시작할 것이다.

그들은 그 땅을 정탐한 뒤 사십 일이 지나 돌아왔다. 그들은 바란 광야의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나아가, 그들과 온 회중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열매를 보여 주었다. 그들이 그에게 보고하여 말하였다.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그 땅에 우리가 이르렀는데,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고, 이것이 그 땅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 사는 백성은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한 성벽으로 둘러싸여 매우 크며, 더욱이 거기서 우리는 아낙의 자손들을 보았습니다. 남방 땅에는 아말렉 사람들이 거주하고, 산지에는 헛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들이 거주하며, 바닷가와 요단 연안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합니다. 모세 앞에서 갈렙이 백성을 진정시키고 말하였다. 우리가 곧 올라가 그 땅을 차지합시다. 우리는 능히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그 백성에게 맞서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정탐한 그 땅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악한 보고를 전하며 말하였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그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거기서 우리가 본 백성은 모두 신장이 큰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거인들, 곧 거인에게서 난 아낙의 자손들을 보았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았으며, 그들의 눈에도 그와 같았습니다. 민수기 13:25-33.

민수기의 이 구절에는 주목해야 할 매우 중요한 진리들이 있는데, 그 안에 나타난 역사를 밀러파 운동을 예표하는 것으로 보지 않으면 쉽게 간과될 수 있다. 그중 한 가지는 '악한 보고'를 한 반역자들이 열 번째이자 마지막 시험에서 실패했다는 것이며, 그 마지막 시험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앞선 아홉 번의 시험의 역사 속에서 형성되어 온 이 두 부류는 어떤 '보고'를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들의 품성이 드러났다. 1863년에 밀러파 재림주의는 레위기 26장에 나오는 노예에 관한 예언으로 대표되는 모세의 '보고'를 거절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제시한 보고는 그들이 노예 상태에서 구원받는 내내 하나님께서 주신 '보고'를 단순히 반복한 것이었다. 모세의 출생 때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노예 상태에서 이끌어 내어 수세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기초가 되는 보고 위에 굳게 선 자들을 대표하고, 다른 열 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보고를 주셨다는 사실을 거부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었고, 백성은 그 밤에 통곡하였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고,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아니면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와 칼에 쓰러지게 하시며 우리 아내와 자녀들이 노략물이 되게 하시는가?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아니하라?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우리가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민수기 14:1-4.

1863년에 제임스 화이트가 리뷰 앤드 헤럴드에 '일곱 때'에 대한 밀러의 이해를 거부하는 글을 기고했고, 같은 해 유라이어 스미스가 레위기의 '일곱 때'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는 위조된 도표를 출판했을 때, 화이트와 스미스 둘 다 윌리엄 밀러의 사역을 제쳐 두고 배도한 개신교의 성경 해석 방법론을 채택했다. 그들이 최근에 '바벨론의 딸들'로

규정했던 배도자들의 방법론이, 천사 가브리엘에 의해 인도된 밀러의 기별을 거절하는 논거로 사용되었다. 고대 이스라엘은 열 번째 시험에서 이렇게 직접 말했다.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열 번째이자 마지막 시험에서의 실패는, 처음부터의 보고와 일치하는 그 ‘보고’를 거절하고 애굽의 종살이로 돌아가려는 욕망에 근거한 것이었다. 예레미야가 1843년의 실패한 예측으로 실망한 자들을 상징적으로 대표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께 돌아와 이전의 기별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라고 분명히 부르셨고, 또한 바벨론의 딸들로 규정된 자들에게는 결코 돌아가지 말라고 명하셨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데려오리니, 너는 내 앞에 서리라. 네가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골라내면, 너는 내 입과 같으리라. 그들이 네게로 돌아오게 하되,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예레미야 15:19.

1863년에 제임스 화이트와 유라이어 스미스는 가서는 안 된다고 명령받았던 곳으로 그들을 되돌아가도록 이끌 새 대장을 임명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했던 사람들을, 화이트와 스미스는 뒤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사람들을 대표한다.

민수기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점은, 모든 반역자들이 앞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게 만든 최종 반역 사건이 성경 예언의 ‘하루를 일 년으로’라는 원칙을 확립하는 두 가지 주요 근거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다. 이 원칙은 밀러가 영원한 복음과 첫째 천사의 기별을 펼쳐 보이는 데 사용했던 가장 핵심적인 예언 규칙이었을 것이다. 그 규칙에 대한 또 다른 성경적 증거는 에스겔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네가 그것들을 마친 후에 다시 네 오른편으로 누워라. 그러면 너는 유다 족속의 죄악을 사십 일 동안 담당하게 되리니, 내가 네게 하루를 일 년으로 정하였느니라. 에스겔 4:6.

하루를 1년으로 보는 원칙을 확립한 두 구절에서 흔히 간과되는 것은 두 구절 모두의 역사적 맥락이다.

너희가 그 땅을 정탐한 날수대로, 곧 사십 일, 하루를 일 년으로 쳐서 너희는 너희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곧 사십 년 동안이요, 너희는 내가 약속을 어긴 것을 알게 되리라. 민수기 14:34.

민수기의 그 구절은 고대 이스라엘의 초기에 일어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반역을 나타냈으며, 에스겔의 그 구절은 고대 이스라엘의 말기에 일어났고 역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반역을 나타냈다. 처음의 징별은 광야에서의 죽음이었고 마지막의 징별은 원수들의 땅에서의 노예 생활이었다. 하루를 일 년으로 보는 원칙은 언약 백성의 반역을 강조한다. 두 가지 징별이 있었는데, 하나는 시작에, 다른 하나는 끝에 있었지만 서로 달랐다. 첫째는 광야 여정 동안 차례차례 죽어 간 것이었고, 마지막은 문자적 바벨론에서의 포로 및 노예 생활이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자들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그

땅은 심히 좋은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니, 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와 함께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와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 앞에 나타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모든 표적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그들을 기업에서 끊고 너를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로 만들리라 하시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이를 들으리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그들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셨으므로 그들이 이 땅의 주민에게도 이를 전하리이다. 그들은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가운데 계시고,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면하여 나타나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머물고,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 앞에서 행하신다고 들었나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처럼 다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열국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일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그들을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원하건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능력을 나타내소서. 이르시되, 여호와와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를 결코 면죄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녀에게 삼사 대까지 갚느니라 하셨나이다. 원하건대 주의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주께서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하옵소서. 민수기 14:5-19.

이 구절들에 나타난 역사는 '노하게 하던 날'이라고 불리는 성경적 상징이 되었다. '노하게 하던 날'은 시편 95편, 예레미야 32장, 히브리서 3장에서 언급되지만, 지금은 그 상징을 다루지 않겠다. 앞선 본문에서 확인된 중요한 원칙이 있으며,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그 원칙은 선지자 사무엘과 루시퍼, 엘렌 화잇, 그리고 물론 이 본문에 나오는 모세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그들이 그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당신은 늙으셨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제 모든 민족들처럼 우리를 재판할 왕을 우리에게 세워 주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우리에게 우리를 재판할 왕을 주라"고 했을 때, 그 말이 사무엘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사무엘은 주께 기도하였다.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네게 말하는 모든 것을 듣고 그대로 하여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내가 그들 위에서 다스리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올린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행한 모든 일, 곧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그대로를 지금 너에게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의 말을 들으라. 다만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그들 위에 다스릴 왕이 어떤 일을 하게 될지를 알려 주어라." 사무엘은 자기에게 왕을 요구한 백성에게 여호와와 모든 말씀을 전했다. 그가 말했다. "너희 위에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다. 그는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자기 병거를 위해, 자기의 기병으로 삼을 것이며, 어떤 이들은 그의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것이다. 또 그는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임명하고, 사람들을 자기 발을 갈게 하며, 자기 수확을 거두게 하고, 전쟁 도구와 병거의 장비를 만들게 할 것이다.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품 만드는 자와 요리사와 제빵사로 삼을 것이다.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 그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들을 빼앗아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또 너희 종자와 포도원 소출의 십분의 일을 거두어 그의 관원들과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또 너희 남종과 여종과 가장 건장한 젊은이들과 너희 나귀들을 데려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다. 또 너희 양의 십분의 일을 거두어 갈 것이니, 너희는 그의 종이 될 것이다. 그날에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택한 그 왕 때문에 부르짖을 것이나, 그날에 주께서는 너희를 들으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백성은 사무엘의 말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며 말했다. “아니다, 우리는 우리 위에 왕이 있어야 하겠다. 우리도 모든 민족들처럼 되고, 우리의 왕이 우리를 재판하며 우리 앞에서 나아가 우리의 싸움을 싸워 주어야 한다.” 사무엘은 백성이 한 모든 말을 듣고 그것을 주의 앞에 아뢰었다.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그들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그들에게 왕을 세워 주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했다. “각자 자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사무엘상 8:5-22.

이 구절에서 고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는 것을 거부했고, 그 역사는 그들이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고 선포하던 때를 가리킨다. 그들은 하나님의 신정정치를 거부하고 자기들 가운데서 왕을 세워 달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그들의 왕이 로마의 왕이라고 선포했다. 말세의 로마의 왕은 로마의 교황이다.

그러나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없애버리소서, 없애버리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우리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요한복음 19:15.

신정정치에 대한 거부는 사무엘에게 너무도 모욕적이고 개인적인 일이었기에 그는 그것을 자신의 선지자 직분에 대한 거부로 이해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거부가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임을 사무엘이 분명히 알게 하셨다. 고대 이스라엘의 반역과 관련하여 모세와 사무엘의 선지자적 역할을 제시하는 이 두 본문에서, 그 반역에 뒤따른 징벌은 고대 이스라엘의 종말이 아니었다.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대표되는 한 무리는 여전히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사무엘의 이야기에서도 고대 이스라엘의 끝은 시작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들의 시대가 마무리될 때에야 찾아왔다.

모세는 하나님께 변론하여 고대 이스라엘과 계속 함께하시도록 요청했다. 그 시점에서 그들의 역사를 끝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거룩한 역사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을 왜곡하는 일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요점은, 하나님께서 반역을 진리의 증거로 사용하시려 할 때에는 그 반역이 일어나고 계속되도록 허락하시기를 선택하신다는 것이다.

사무엘에게서 드러난 의로운 분노의 태도는 엘렌 화이트에게서도 드러났다.

우리 백성들 가운데 미니애폴리스에서 나타난 것만큼 완강한 자기만족과 빛을 수용하고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태도를 나는 일찍이 본 적이 없다. 나는, 그 모임에서 나타난 그 정신을 품었던 무리 중 단 한 사람도, 그들의 교만을 낮추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 움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편견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고백하기 전에는, 하늘에서 그들에게 보내진 진리의 귀함을 분별할 분명한 빛을 다시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보여 주심을 받았다. 주께서는 그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배도를 고쳐 주시기를 원하셨으나,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들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사로잡았던 바로 그와 같은 정신에 의해 움직였다.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할 모든 증거를

거부하기로 결심하였고, 많은 이들이 그들에게 끌려 그들과 연합할 때까지 그들의 불만과 이탈의 길을 계속 걸어갔다.

이들이 누구였는가? 약한 자들도 아니고, 무지한 자들도 아니며, 깨우침을 받지 못한 자들도 아니었다. 그 반역에는 회중 가운데서 이름난 이백오십 명의 지도자들, 명성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의 주장은 무엇이었는가? '온 회중이 거룩하며, 그들 각 사람도 그러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거늘, 어찌하여 너희가 여호와와의 회중 위에 스스로를 높이느냐?' [민수기 16:3]. 고라와 그의 동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멸망했을 때, 그들에게 속은 백성은 이 기적에서 여호와와 손을 보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 '너희가 여호와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41절]라고 비난하였고, 재앙이 회중에게 임하여 만사천 명이 넘는 이들이 죽었다.

내가 미니애폴리스를 떠나기로 작정했을 때, 주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을 가지고 계시다. 백성들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을 되풀이하고 있다. 내가 너를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위치에 두었으나, 빛 가운데 있지 않은 자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너의 증언에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나의 은혜와 능력이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그들이 멸시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가 내 백성에게 보내는 사자들과 그 기별이다. 그들은 주의 말씀을 경멸하였다. 사탄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의 판단을 왜곡시켰다. 그리고 모든 영혼이 하나님의 영을 모독하는 이 거룩하지 않은 독립심, 곧 이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어둠 가운데 행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회개하여 돌이켜 내가 그들을 고치게 하지 않으면, 나는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영적 시력을 흐리게 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과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는 그들이 나의 말씀을 조롱하고 혐오하는 영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경박함과 경솔함과 희롱과 농담이 날마다 행해지고 있다. 그들은 나를 찾기로 마음을 정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기들이 피워낸 불빛 속을 걸으며, 회개하지 아니하면 슬픔 가운데 눕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네 의무의 자리에서 굳게 서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고,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나는 감히 무시하지 못하였다. 1888년 자료집, 1067.

화이트 자매는 사무엘과 같은 태도를 보였고, 반역자들과 그들의 반역 가운데 남아 자신의 "의무"의 "자리"에 "서 있으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녀(여예언자)가 반역자들과 그들의 반역을 그들 스스로 하도록 내버려 두고 떠나기로 결심한 뒤에, 그녀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다.

최초 언급의 원칙은 알파와 오메가의 원칙의 핵심 요소로서, 어떤 주제가 처음 언급되는 것이 지극히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루시퍼의 반역의 바로 그 시작과 관련된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셨다면 루시퍼의 마음에서 처음으로 떠오른 이기적인 생각 그 순간에 루시퍼를 제거하실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루시퍼를 피조세계에서 제거하실 수 있었고, 그렇게 하시기로 선택하셨다면 다른 어떤 천사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알지 못할 방식으로 그렇게 하실 능력을 가지고 계셨다. 물론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그 여러 이유 가운데서도 그것은 그분의 성품을 부정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분은 바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오래 참으시며 그 반역이 그분의 성품에 대한 증언의 일부, 하늘에서 시작되어 마침내 땅으로 오게 될 논쟁에 대한 증언의 일부가 되도록 허락하셨다. 이것이 모세의 담화가 고대 이스라엘을 위해 이루어 낸 것이다. 하나님은 반역한 그 세대가 광야에서 죽도록 허용하셨고, 그 역사를 영원한 복음과 관련된 진리들을 더욱 진전시키기 위한 성경적 본보기로 사용하셨다.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한 일도 마찬가지였다. 사무엘은 자신의 개인적 확신과 예언적 지식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가 맡은 직분의 자리를 지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하나님의 예언적이고 역사적인 섭리의 이러한 면모는 바벨론 포로 이후 성전 재건에서도 확인된다. 하나님은 칠십 년 포로 기간의 모든 요소, 곧 예루살렘으로의 귀환과 예루살렘의 재건, 성전과 거리와 성벽까지를 미리 예언하시고 주관하셨다. 그분은 포로에서 해방될 때를 가리키는 시기 예언을 제시하셨다. 또한 이천삼백 년의 시작을 표시할 칙령이 몇 개가 될지도 밝히셨다. 그분은 첫 번째 칙령으로 그 과정을 시작할 이방 왕 고레스의 이름까지 지목하셨다. 예루살렘과 성전 재건의 모든 요소가 구체적으로 지목되었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그분은 의인들과 선지자들을 일으키셨다.

명백한 신적 예언적 예지와 개입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포로로 이어진 그 반역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신 그분의 직접적인 임재를 이미 종결시켰다. 재건된 성전에 쉼기나 영광은 결코 돌아오지 않았다. 성전은 다시는 지성소에서 쉼기나의 임재로 복을 받지 못했지만, 그 모든 역사는 세상 마지막 때의 역사에 예언적 구조를 부여하는 데 사용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재건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반역의 증거였다. 그럼에도 그 시대의 선지자들은 미니아폴리스에서의 사무엘과 화잇 여사처럼 선지자의 직분을 계속 수행했다.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큰 대립에서 먼저 언급되는 것은 루시퍼의 반역이며,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그 반역이 계속되도록 허용하셨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처럼 되기를 바라는 욕망에 대해 의로운 분노를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두 왕에게 기름을 붓는 일에 참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했는데, 그 성전에는 다시는 하나님의 쉼기나 임재가 임하지 않을 것이었다.

1863년 재림주의의 반역을 은폐하려는 시도로 예언의 말씀에 맞서 그들의 '우화의 접시들'을 동원하고, 1863년에 무언가 잘못된 일이 있었다면 여선지자가 그것을 금했을 것이라는 논리에 자신의 주장을 세우는 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처음 언급될 때 밝혀진 첫 번째 원리에 대해 고의적 무지에 빠져 있는 자들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반역을 허용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반역들에 대해 그분의 선지자들이 중립을 지키거나 침묵하도록 선택하신다 해도, 그것은 그분의 선택이다.

1844년부터 1863년까지의 시험 과정—고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뒤 실패한 열 가지 시험으로 예표된—을 고찰하기 시작할 때, 이 성경적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순종의 때든 불순종의 때든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겉으로 보기에 선지자가 당연히 항의할 법한 사안들에 대해서도 때로는 항의하지 않는다. 때로 그들은 반역을 분명히 인지하고도 제지되며, 또 다른 때에는 주께서 그 반역에 관하여 그들의 눈을 가리신다. 이러한 관점을 인정할 때, 1863년은 성경 예언의 여섯째 왕국의

역사에서, 개신교의 별과 공화주의의 별 모두에게 중요한 이정표가 된다.

나는 또한 선지자들을 통해 말하였고, 많은 환상을 주었으며, 선지자들의 사역을 통해 비유를 사용하였다. 호세아 12:10.